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노라”  
SNS 본인 소개란에서 마두로 정권 비판한 베네수 청년 10년형**



베네수엘라에서 소셜미디어(SNS)의 본인 소개란에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 청년이 법원에서 10년 형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마투린 제2형사법원은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메를리스 오르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 엘나시오날과 오로노티시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대로 알려진 오르페사는 부정 개표 논란 속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당선(3선)으로 귀결된 지난해 7월 대선 이후 소셜미디어 왓츠앱(WhatsApp) 자기 소개란에 “이 것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별레 가득한 식량 원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역 생산·공급 위원회(CLAP·클라프)에서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매수한 뒤 주민들에게 무상 또는 매우 싼 값에 배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클라프는 부실한 보관 시설과 직원 부패 등 의혹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 지역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오르페사에 대한 수감 결정과 유죄 판결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엘나시오날은 전했다. 오르페사 유죄 선고 사실은 그의 자필 서한을 가족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오로노티시아스는 보도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손 편지에서 오르페사는 “저는 어두운 곳에 갇혀 있으며,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에 눌려 있다”라면서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그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며, 계속 살아갈 힘조차 남아 있지 않다”라고 쓰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최루ガ스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군과 경찰의 강력한 대응 속에 1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역대하 7:14-15)**

하나님, 현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선고받아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한 청년의 소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강한 통제와 공포정치로 인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영원한 언약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소서. 또한 마두로 정권의 어둠의 일을 피하시고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님을 만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니제르, 마약범죄로 7,788명 체포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지난 1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 총 7,788명이 체포되고, 마리화나 등 마약 수톤 분량이 압수됐다고 27일 뉴시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알리오 두아다 법무장관은 전날 수도 니아메이에서 열린 ‘세계 마약 범죄와 불법 거래 근절의 날’ 기념행사에서 “니제르는 한 때 마약 거래의 통과국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마약소비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압수한 마약이 마리화나 약 10톤, 마리화나 농축액 30kg, 코카인 5kg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두아다 장관은 “마약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마약과 싸우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과 사법 시스템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15)**

하나님, 심각한 마약 범죄로 인하여 마약 거래 통과국을 넘어 이제는 마약 소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는 니제르를 고쳐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빈곤과 궁핍,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들로 하여금 마약을 피난처 삼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끊어주시고 어두운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길 간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니제르에 세우신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소서.

### ▲ 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사기 조직 인신매매 방조”…전기고문·감금 실태 폭로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국 53곳의 사기 작업장에서 수많은 이들이 감금·고문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취업 사기로 유인된 뒤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탈출 시 전기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작업장에는 고문 전용인 ‘다크룸’도 존재했다. 중국계 조직들은 팬데믹 기간 카지노와 호텔을 사기 시설로 개조했고, 피해자는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유엔은 추정했다. 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묵인·공모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작업장 폐쇄를 요구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언 24:11,14)**

하나님, 인신매매로 묶임 가운데 사기 강제노동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구조해 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런 악행을 꾀하는 중국계 조직원들과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캄보디아 정부를 꾸짖어 주셔서 엄의하신 주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진 캄보디아교회가 영혼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힘 있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정부시위에 14만 명 모여…수십 명 연행**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 끝에 수십 명이 연행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28일 베오그라드 중심가 슬라비야 광장 일원에서 열린 시위에는 약 14만 명이 모였으며, 대학생들이 주도한 참가자들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며 조기 총선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작년 11월 노비사드에서 개최된 철도역 지붕이 붕괴돼 16명이 숨진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많은 세르비아 국민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부패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보고 있다. 이후 약 8개월간 지속된 반정부 움직임이 지난 토요일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 등을 쏘며 진압에 나섰고 시위자들은 돌과 병, 기타 물체를 던졌다. 경찰에 따르면 48명의 경찰관이 다쳤고, 시위대 2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 77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8명은 현재도 구금 중이며 대부분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비차 다치치 내무장관이 밝혔다. 검찰은 29일에만 최소 8명이 추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 대학생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자금을 받고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기 총선과 사임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는 “추가 체포가 있을 것이며, 관련 인물들의 신원 파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르비아는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의원내각제이지만 실권자는 부치치 대통령이다.

29일, 시위대는 체포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봉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 정부를 “정통성 없는 정권”이라 규정하고, 폭력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기 선거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며, 예정된 2027년 총선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총리 취임 이후 2017년과 2022년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부치치 대통령은 친러시아 행보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고 있다. 반부패 시위대는 그가 집권한 이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부패와 조직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경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라디아서 5:16,24)**

하나님, 정부의 부패와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로 국민들의 반정부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혼란 속에 있는 세르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자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폭력과 다툼으로 분쟁하게 하는 악한 자의 충동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가 손들어 기도할 때 부패와 불법을 면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한국, 2023년 하루 평균 11명 중독으로 사망…대다수 자살 목적

2023년 국내에서 하루 평균 11명에 가까운 인원이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살을 목적으로 한 중독이었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전국 250개 병원(100병상 이상)의 퇴원환자 표본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885명으로, 전체 손상 사망자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수치다. 특히 중독 사망자의 93.6%가 자살 목적의 의도적 중독이었으며, 퇴원 중독 환자 2만 1,935명 중 여성 비율이 57%로 남성보다 높았다. 의도적 자해 목적의 중독에서는 여성 비율이 70.4%로, 남성(6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5~24세 청년층의 의도적 자해 중독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용된 중독 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신경정신작용약물(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등)이었으며, 진통해열제, 가스·휘발성 물질, 살충제·제초제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라디아서 5:5-6)**

하나님, 한국에서 하루 평균 11명이 중독으로 사망한다는 참담한 소식 앞에 주의 궁휼을 구합니다. 세상과 육체의 만족에 집중하는 이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중독과 자해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꾸짖어 멀하여 주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모든 세대를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여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 멕시코, 카르텔 분쟁 지역서 시신 20구 발견…“다리 위에 시신 내걸려”

멕시코의 악명 높은 시카리오(청부 살인업자) 집단이자 마약 밀매 카르텔 분쟁 지역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엘우니베르살 등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시신들은 서부 시날로아주(州) 중심 도시인 쿨리아칸 지역 15번 고속도로 주변에서, 16구는 도로변에 버려진 화물차 안에 포개져 있었으며, 4구는 머리 없는 상태로 다리 위에 내걸려 있었다. 멕시코 주요 언론들이 ‘올해 들어 발생한 가장 끔찍한 정황’이라고 표현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당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쿨리아칸은 현재 미국에서 수감 중인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시날로아 카르텔의 주요 활동지로, 멕시코 당국은 시날로아 카르텔 수괴급 범죄자들의 줄 체포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내부 분파 및 다른 조직 간 주도권 다툼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엔 시날로아 카르텔 내 분파 간 충돌 속에 15번 고속도로에서 손이 결박된 시신 5구가 머리에 솜브레로(챙이 넓은 모자)를 쓴 채 발견된 바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시편 5:6-7)**

하나님, 멕시코 마약 카르텔 분쟁지역에서 끔찍한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준 사건 앞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며 마약과 중독 등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더한 악으로 치닫는 이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사탄의 간계를 무너뜨려 주소서. 주여, 수많은 범죄와 문제로 고통하는 멕시코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진 심령을 고치사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시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트랜스젠더 발언으로 처벌받은 멕시코 정치인, ‘워키즘, 반대 의견 억압’ 주장**



멕시코의 보수 정치인 가브리엘 콰드리(Gabriel Quadri)가 최근 한 트랜스젠더 정치인을 “생물학적 남성”이라고 지칭했다가 “여성에 대한 정치적 침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콰드리는 워키즘(wokeism, 각성이념)이 자국 내에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외교적 개입을 요청했다.

콰드리는 멕시코 의회 내 여성에게 할당된 하원의석을 트랜스젠더 후보들이 차지한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SNS 플랫폼 X 계정에 올린 뒤, 논란을 빚었다. 3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멕시코 법원은 콰드리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5일간 하루 두 차례씩 X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콰드리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멕시코가 빠르게 독재국가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 “이웃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멕시코 내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콰드리는 또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젠더·정체성 중심 이념에 물든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며 “여성들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는 남성들에게 의석을 빼앗기고 있다. 이는 큰 불의이자 페미니즘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관련, 콰드리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 보수 법률단체 ADF 인터내셔널(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은 멕시코 정부가 콰드리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ADF는 이 사건을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조사하고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리를 사도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잠언 23:17,23)**

하나님, 트랜스젠더 정치인을 생물학적 남성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수 정치인을 주께 의탁드리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그의 외침이 외부에 들려지게 하소서. 진리에 반하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바른 가치관을 그르다 말하는 이들의 어그러진 심령을 십자가 복음으로 고쳐주셔서 이 땅에 치우쳐 행해지는 정책들이 철회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진리를 귀하게 받은 교회가 이때 더욱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멕시코 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 기록 삭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의 우승 기록을 삭제하고, 토머스의 출전으로 불이익을 받은 여성 선수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생물학적 성별 기준의 스포츠 분리 정책’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종목 경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토머스는 고교 시절 남자 경기에 출전해 입상했고 2017년 펜실베이니아대에 입학했다. 그는 2019년 성전환 후 2022년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부 자유형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로는 첫 우승을 차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여러 선수와 지도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완전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며 토머스의 우승 무효를 주장했다. 국제수영연맹은 이후 규정을 강화해 출생 시 여성인 선수만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는 이 규정을 두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5,15)**

하나님, 생물학적 남자 선수가 여성 경기에 참여해 여성 선수들의 우승 기회를 잃게 만든 일에 대하여 펜실베이니아대학이 올바른 조치를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구하오니 미국의 모든 대학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불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의 법과 질서가 이 나라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마다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되어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진리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 ▲ 호주 콴타스 항공, 해킹으로 고객 정보 최대 600만 건 유출

호주 국적항공사 콴타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최대 6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고 2일 뉴시스가 CNN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유출은 항공업계를 노린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콴타스는 지난달 30일,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외부 고객지원 플랫폼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직후 시스템을 차단하고 피해 범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다만 콴타스는 여권 정보, 신용카드 및 금융 정보, 마일리지 계정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은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유출 규모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호주 연방경찰과 사이버보안센터, 정보위원회 등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상태다. 고객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해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사이버 범죄 조직 ‘스캐터드 스파이더(Scattered Spider)’가 항공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경고를 낸 직후 발생했다. 최근 2주 사이 미국 하와이안항공과 캐나다 웨스트젯도 유사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라(요한복음 10:10)**

하나님, 해킹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을 주께 고합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개인정보를 도둑질해 불법을 행하려는 범죄 조직들을 파하여 주시고 이들의 검은 음모가 속히 드러나게 하소서. 인간의 마음 안에 시작된 죄악을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오니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